

태백시와 영춘맺기 : 미디어가 만들어낸 지역의 단편적 이미지를 넘어서

문화인류학과 202211686 박은수

목 차

1. 들어가며
2. 태백의 역사와 환경
3. 태백의 사람과 삶
4. 공중파와 개인 미디어의 태백 이미지 형성 방식
5. 태백시와 진정한 영춘맺기를 위한 방법과 외부인으로서의 성찰
6. 나가며

1. 들어가며

누군가와 영춘을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간다는 뜻이다.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상대와 내가 결코 그 경지에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이 영춘을 맺기 위해선 꾸준히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듯, 사람과 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고향이라고 해서 과연 나와 영춘을 맺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단순히 곁에 있는 것과 대상을 잘 알고 상호작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구수나 면적 같은 수치를 아는 것을 넘어,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 삶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까지 들여다보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필자가 태백시와 영춘을 맺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태백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인터넷상에 공개된 유튜브 콘텐츠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매체에서 보이는 태백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분석하고 필자를 포함한 외부인이 태백시의 이미지를 소비하며 맺는 관계의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필자가 태백시를 떠올렸을 때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탄광, 가장 작은 도시, 복고적인 분위기 등은 실제 태백시에 방문하여 직접 느낀 감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생산된 여행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무의식중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 점을 연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다. 즉, 직접 발을 딛기도 전에 미디어가 만든 프레임을 통해 태백에 대한 시선을 미리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미디어가 만드는 하나의 장소에 대한 관점이 실제 그곳의 본질과 얼마나 닮아있는지, 혹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이 글은 그 과정을 따라가며, 필자가 태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디어 프레임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과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탄광 도시 태백은 이제 폐광이라는 역사적 지점을 지나서 고원 관광 도시로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각종 매체들이 생산해내는 태백의 이미지는 외부인이 지역을 인식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따라서 이 글은 매체를 통해 형성된 태백시의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쇠퇴한 산업 도시의 정체성이 어떻게 재구축되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필자를 포함한 외부인들이 태백이라는 공간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고 소비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미디어가 만든 표면적 이미지를 넘어 태백과 진정한 의미의 영춘을 맺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태백의 역사와 환경

강원특별자치도 동남부에 위치한 태백시는 평균 해발고도가 650에서 700m에 달하는 고원 분지 지형으로 이루어진,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이다. 서쪽의 태백산과 함백산, 북쪽의 매봉산과 금대봉, 동쪽의 백병산 등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가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특히 매봉산과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발 1,300m 내외의 고위평탄면이 발달하여 대규모 고랭지 채소밭과 풍력 발전 단지로 이용된다. 기후는 내륙 산간 지대의 특성을 반영해 1991년부터 2020년 평년값 기준 연평균 기온 9.0℃, 여름철 일평균 최고기온 25.3℃, 겨울철 일평균 최저기온 영하 8.1℃를 기록하며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여름철 열대야가 발생하지 않는 냉량한 기후를 보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08mm로 대부분 여름철에 집중된다. 매봉산 일대의 연평균 풍속은 초속 8.3~8.4m에 달해 인근 대관령보다 강한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태백시는 한반도의 주요 수계인 한강, 낙동강, 오십천이 발원하는 곳이다. 그 중심인 삼수령에 내린 빗물은 지형적 경사에 따라 서해, 남해, 동해로 각각 나뉘어 흘러간다. 금대봉 북사면에 위치한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는 하루 2,000~3,000톤의 지하수가 고생대 석회 암반을 뚫고 용출되며, 연중 수온 9℃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 역시 하루 약 5,000톤의 지하수가 솟아나며 수온 9~11℃를 유지한다. 황지에서 발원한 황지천은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점동 일대에서 거대한 석회암 산지를 관통하며 하천침식 지형인 구문소를 형성하고, 철암천과 합류하여 낙동강 본류를 이룬다.

지질학적으로 태백시는 옥천 습곡대 동부에 속하며, 고생대 캄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스기에 걸쳐 퇴적된 해성층인 조선 누층군으로 인하여 석회암과 후기 석탄기에서 중생대 삼첩기에 퇴적된 평안 누층군으로 인하여 무연탄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이러한 지질 구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 매장지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삼엽충, 완족류, 두족류 등 고생대 해양 생물 화석 산지를 남겼다. 또한 석회암 지대의 특성상 해발 920m에 위치한 총길이 843m의 용연동굴과 700m 깊이의 수직 동굴인 월둔동굴 등 다양한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해 있다. 금대봉과 대덕산 일대 416만 5,300㎡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 특산식물 15종, 희귀식물 16종을 비롯해 참매, 새매 등 천연기념물 조류와 꼬리치레도롱뇽 집단 서식지, 미기록종 곤충 13종 등이 관찰되는 산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1 - 국내 최초 아파트형 사택 과거 모습
(출처: 지역N문화)



그림2 - 현재 철암역 앞 건물과 개천
(출처: 오마이뉴스)

역사적으로 태백은 화전민이 거주하던 산간 오지였으나, 고대부터 태백산 정상에 천제단이 축조되어 국가적 제천 의례가 이루어지는 등 종교적 거점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태백의 역사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석탄 채굴이 시작되면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근대 산업 도시로 탄생하게 된 것인데,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석탄은 국가 재건과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검은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의 고부가가치 광물이었다. 석탄을 캐는 탄광이 위치했던 태백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산업 전사들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탄광도시로 거듭났다. 이 시기 태백은 대졸 초봉의 몇 배를 넘는 고수익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어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경제적 풍요의 한 때를 보냈다. 당시 13만 명을 넘어섰던 인구 규모와 경제력, 그리고 광산 노동자들을 위해 조성된 독특한 사택촌 문화는 태백을 국가 발전을 위한 탄광 배후 도시이자 풍요의 상징으로 보이게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에너지 소비 패턴이 석유와 가스로 변화했고, 1989년에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태백의 공간적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꾼 분기점이 되었다. 주력 산업인 광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대규모 광업소들이 잇따라 폐쇄되었다. 이 때문에 태백의 번영은 금세 인구 급감과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졌다. 태백은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소도시가 될 만큼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활기 넘치던 탄광 노동의 현장은 낙후한 폐광 지역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혔다. 최근 태백시는 이러한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지형적 강점을 극대화한 산소 도시로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과거 노동의 흔적인 폐광산과 사택촌을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이나 문화 공원으로 재생하는 정체성 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의 태백은 산업화 시대의 거친 역사 위에 현대의 휴양 가치를 더한 공간으로, 외부인들에게 고원 관광 도시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3. 태백의 사람과 삶

태백의 사람과 삶은 국가 산업의 성공과 쇠락의 길을 같이 걸으며 궤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태백은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로 붐비는 거대한 이주민 도시였다. 당시 지역 사회는 막대한 현금이 유통되는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 그러나 이는 해수면보다 낮은 수직 갱도를 타고 내려가 지하 막장에서 섭씨 35도를 웃도는 지열과 싸우며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대가였다. 수백 명의 광부가 잦은 붕괴 사고와 진폐증으로 목숨을 잃는 극한의 노동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산업전사로서의 자부심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광산 노동 이면에는 태백 지역 여성들의 치열한 생존 노동도 존재했다. 광산 사고로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탄부로 특별 채용되었다. 이들은 요란한 기계음과 칠흙 같은 석탄 가루가 날리는 선탄장에서 새 없이 불순물을 골라내는 고된 노동을 감당했다. 이른바 검은 장미라 불리던 여성 노동자들을 비롯해, 광부들의 땀에 전 작업복을 매일 세탁하고 좁은 사택촌에서 대가족을 부양하던 여성들의 헌신은 탄광촌이라는 특수한 생활 공동체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동력이었다.

광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척박한 고산 지대를 개간하여 생존을 모색한 농업 공동체도 태백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해발 1,000m가 넘는 매봉산과 귀네미마을 일대는 본래 화전민들이 흩어져 살던 오지였으나, 1960년대 산림 녹화 사업 및 화전민 정착 정책과 맞물려 거대한 배추밭으로 개간되었다. 주민들은 척박한 돌밭의 임목을 베어내고 산전을 공동으로 일군 뒤 경작지를 평등하게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오늘날 수백만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랭지 배추 산지를 형성했다. 하지만 최근 이상 기후와 폭염으로 인해 배추 수확량이 위협받고 농가의 고령화가 겹치면서, 이들 고원 농업 공동체는 또 다른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태백 사람들의 일상은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겪게 된 극심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현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2024년 기준 3만 명대 후반으로 급감했으며, 전체 인구의 28.9% 이상이 65세 이상 노년층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장성광업소와 철암역을 중심으로 최대 상권을 자랑하던 지역들은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일부 동 지역은 인구가 2,000명을 밑돌아 약국조차 찾기 힘든 생활 인프라 붕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인구 소멸과 경제 침체의 위기 속에서도 태백 주민들의 삶은 지역 축제와 마을 공동체 중심의 공간 재생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 태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태백산 눈축제와 7월 말 황지연못 등 도심에서 진행되는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단순한 관광 상품을 넘어 지역 주민의 결속을 다지는 거점 행사로 기능한다. 특히 발원지 축제 기간 중 도심을 가로지르는 워터워킹 퍼레이드와 야간 낙화놀이도 진행된다. 황지연못 스마트 쉼터 앞에는 전통놀이존이 상시 설치된다. 이 공간은 전체 인구의 28%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층 주민들이 윗놀이, 바둑, 장기 대항전 등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과 지역 사회 통합을 유도한다.

과거 광부들의 거주지였던 마을 단위의 공간들은 일상과 산업 유산이 혼재된 생활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다. 철암동의 철암천 변에 기둥을 세워 생활 공간을 확장한 까치발 건물 밀집 지역은 철암탄광역사촌으로 조성되었다. 이 지역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거나 식당 및 카페 등의 상업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일상 공간과 중첩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시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천 건너편의 구 탄광 노동자 거주지였던 삼방마을 역시 골목 벽화 마을로 보존된 채 주민들의 실제 거주가 지속되고 있다.

도시 전체 차원에서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거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을 통해 164억 4천만 원 규모로 추진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시는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포용 교육 플랫폼과 거점형 교육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관리 주체가 사라진

노후 석공 아파트 부지를 전면 수용하여 통합 공공임대주택 100호 규모의 저탄소 스마트 정주 타운으로 재조성함으로써, 원주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신규 유입 인구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 재구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4. 공중파와 개인 미디어의 태백 이미지 형성 방식

공중파 방송 매체인 KBS의 「다큐 인사이드」, 「다큐멘터리 3일」, 「걸어서 세계속으로」는 태백시를 주로 역사적 기록의 대상이자 국가적 서사의 중심지로 재현한다.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연출 방식은 갭도 내부의 어둠과 소음을 먼저 시각적으로 제시한 뒤, 그 속에서 일하는 광부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다큐멘터리 3일」에서는 새벽 4시 갭도 입구에서 헬멧을 고쳐 쓰는 광부의 손과, 탄가루가 피부에 파고든 손등의 주름을 카메라가 담아낸다. 「다큐 인사이드」의 장성광업소 편에서는 폐광을 앞둔 광부가 갭도 벽에 손을 짚고 서서 자신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 조용한 내레이션과 함께 이어진다. 「걸어서 세계속으로」는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는 날 광부가 작업복을 개켜 두고 갭도를 빠져나오는 모습을 롱테이크로 담으며 여운을 남긴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며 필자는 공중파 다큐멘터리가 시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유도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카메라는 탄가루 · 어둠 · 소음이라는 시각적 요소를 통해 노동의 가혹함을 먼저 제시한다. 그 위에 잔잔한 음악과 절제된 내레이션을 얹음으로써, 시청자가 경외심과 연민을 동시에 느끼도록 유도한다. 즉 광부를 국가 성장을 위해 희생한 산업전사로 보이게 편집한 것이다. 필자는 이 점에서 공중파의 재현이 태백을 과거의 역사 속에 고착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태백은 현재를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보존되어야 할 기억의 박물관으로 나타난다. 이는 시청자에게 지역에 대한 무게감과 국가적 부채 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태백을 현재의 삶이 이어지는 도시로 보는 시선을 오히려 차단한다.

반면 유튜브와 같은 개인 미디어는 태백시를 철저히 체험과 소비를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빠니보틀의 영상에서 태백은 ‘광산 도시’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로 제목을 달아놨지만, 실제 내용은 철암역 앞 까치밭 건물에 가거나 감자옹심이를 먹는 여행기로 채워진다. 박소룡과 오호부부의 콘텐츠에서는 고랭지 배추밭의 광활한 풍경과 몽토랑 산양목장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드론 샷으로 펼쳐지고, 용연동굴의 서늘한 공기와 구문소의 절경이 감탄사와 함께 나타난다. 주말남의 영상은 제목에서 ‘인구소멸 위기의 도시’를 내세우지만, 정작 영상 안에서 탄광의 역사는 폐광 건물 앞 30초짜리 짧은 언급으로 처리되고 이내 숙소 추천과 맛집 정보로 넘어간다. 썸네일에는 예외 없이 푸른 고원 풍경이나 레트로한 건물 외관이 배치되어 있으며, ‘여름에도 시원해요’, ‘레트로 감성 가득’, ‘숨겨진 힐링 성지’ 같은 문구가 반

복된다.

이 영상들을 보면서 필자는 처음에 솔직히 흥미롭다는 감각을 먼저 느꼈다. 서늘한 고원 도시, 낡고 독특한 건물들, 은하수가 보이는 밤하늘이라는 이미지는 분명 매력적이었고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욕구를 일으켰다. 그러나 동시에 필자는 그 매력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철암역 앞 까치밭 건물은 실상 광산 노동자들이 비좁게 살던 생존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카메라는 그 건물을 배경으로 인물이 포즈를 취하는 장면을 담으며 ‘빈티지하다’고 묘사한다. 폐광 지역의 공동화와 생활 인프라의 붕괴는 영상 안에서 ‘소도시 감성’으로 치환된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개인 미디어의 레트로 프레임이 장소의 고통을 시각적 즐거움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삶의 아픔이 담긴 공간이 미적 상품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이 가진 역사적 맥락은 뒷편으로 사라진다.

공중파와 개인 미디어는 태백이라는 동일한 장소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단편화한다. 공중파는 태백을 수직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역사와 희생의 공간으로 고착시키고, 개인 미디어는 이를 수평적으로 넓게 펼쳐 휴양과 감성의 공간으로 소비하게 만든다. 필자가 두 유형의 미디어를 교차하며 보면서 느낀 것은, 어느 쪽도 태백을 지금 현재 삶이 흐르는 도시로 온전히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공중파의 프레임 안에서 태백 주민은 과거의 기억을 증언하는 역할에 머물고, 개인 미디어의 프레임 안에서 주민의 일상은 여행자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배경으로 물러선다. 두 프레임 모두 지역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를 지워버린다는 공통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편향된 재현이 외부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필자 역시 이번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태백 하면 탄광과 레트로 감성 이외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려웠는데, 이는 오랜 기간 두 유형의 미디어가 각인시킨 프레임이 필자의 인식 안에서 태백을 이미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이제는 알 수 있다. 미디어가 특정 지역에 특정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쬐올 때, 외부인은 그 프레임을 통해서만 지역을 바라보게 된다. 이는 태백이 가진 복합적인 정체성을 평면적으로 압축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터가 타인의 감정 소비나 미적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어지는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레임의 한계를 인식한 외부인은 태백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다음 장의 출발점이 된다.

5. 태백시와 진정한 영촌맺기를 위한 방법과 외부인으로서의 성찰

이 글을 쓰기 전까지 필자에게 태백은 실제로 가본 적 없는 도시였다. 그럼에도 태백을 떠올리면 탄광, 레트로 골목, 시원한 고원이라는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그 이미지들이 얼마나 손쉽게 형성되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유튜브 영상 몇 편과 블로그 포스팅 몇 개가 필자의 태백 인식 전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불편했던 것은 그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필자가 느꼈던 감정의 성격이었다. 공중과 다큐멘터리를 보며 광부들의 삶에 연민을 느꼈을 때, 그 연민은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또, 유튜브 영상 속 철암역 까치밭 건물을 보면서 가보고 싶다고 느꼈을 때, 그 욕구는 그 공간의 역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필자의 감정은 미디어가 설계한 방향대로 흘러갔을 뿐이었다. 필자는 태백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태백에 대한 누군가의 해석을 소비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한 지역을 완전히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두 프레임 어느 쪽에도 머물지 않고, 미디어가 보여주는 분위기와 그 이면의 역사를 분리된 정보로 보지 않는 통합적 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태백의 시원한 고원 기후나 레트로한 감성은 장소가 가진 현재의 분위기다. 반면 그 토대가 된 관광 산업은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한 서사이다. 이 두 모습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분위기가 과거 역사에 근거한 독특한 색채를 갖게 하고, 역사는 현재의 분위기를 통해 대중에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서로를 구성한다. 또한 이렇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삶이다. 태백을 단순히 사진 촬영의 배경으로 소비하는 대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의 산업 전사로서의 광부와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 주민들의 서사는 단절되어 있지 않고, 태백이라는 자리와 시간의 축 위에서 이어져 있다. 외부인이 지역의 역사적 서사와 주민들의 현재 삶을 사람과 삶이라는 창을 통해 들여다볼 때, 한 지역은 관광지에서 삶의 장소로 바뀌어 드러난다. 정보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지역과 실제로 관계를 맺는 일이어야 한다.

이 깨달음은 영촌맺기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영촌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를 깊이 알아가는 일이라고 1장에서 밝혔다. 그런데 미디어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 지역을 소비하는 행위는 영촌맺기와 반대 방향에 있다. 그것은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을 골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따라서 태백과의 진정한 영촌맺기는 역사, 이야기, 분위기 그리고 삶이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신기한 관광지나 어둡고 막막한 갭도라는 편향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태백과 영촌을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프레임을 통해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입구로 삼되, 그 입구에서 멈추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과거의 삶의 모습을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읽어내고, 현재의 사람들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유추하는 복합적인 수용이 가능해질 때, 태백은 필자에게 단순한 방문지를 넘어선 영촌이 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인지 방식이야말로 태백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히 존중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필자에게 태백은 아직 직접 만나지 못한 도시다. 그러나 이 글을 쓰고 난 지금의 태백은 이전과 다르다. 탄광촌이라는 단어 뒤에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했던 사람들의 무게가 느껴지고, 레트로 감성이라는 말 뒤에 쇠퇴와 공동화의 아픔이 겹쳐 보인다. 완전한 이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디어가 건네준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던 태도에서는 벗어났다. 필자는 이것이 태백과 진정한 영혼을 맺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실제로 태백에 가게 된다면, 그때의 필자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태백을 알고 찾아가는 외부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이 글을 작성하면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태백시가 폐광이라는 사건을 지나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재구축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공중과 미디어가 탄광의 역사를 송고한 희생의 서사로 기록하며 장소의 수직적 깊이를 강조했다면, 개인 미디어는 이를 현재적 감각과 미적 취향에 기반한 유희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상반된 두 매체의 재현 방식은 태백이라는 공간 위에서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외부인이 지역을 인식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미디어가 생산하는 이미지는 자칫 지역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고착화할 위험을 동반한다. 태백이 슬픈 과거 혹은 가벼운 유희의 프레임으로만 보여질 때,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지역의 이미지는 대중의 일시적인 욕망에 따라 소비되기만 할 가능성이 크다. 필자 역시 이번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한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미디어가 건네준 언어로 태백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정작 그 언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태백과의 진정한 영혼맺기는 분위기와 역사, 그리고 사람을 하나의 맥락으로 통합하여 바라보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필자 역시 이번 연구를 통해 미디어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로서의 태백을 넘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도시로서의 태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태백은 아직 필자에게 직접 발을 딛지 못한 도시이지만, 이 글을 쓰고 난 지금은 미디어 프레임을 걷어낸 자리에서 태백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이 현대 사회에서 외부인이 특정 지역을 미디어를 통해 인식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물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정우 · 한기웅, 2019, “폐광지역 재생 사례를 통한 도시 재생 디자인 전략 연구 - 태백시 폐경석 활용을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60.
- 강원도민일보, 2026, “열대야 없는 고원도시 태백, 7월 관광객 증가율 도내 1위 기록,” (접속 2026. 4. 30.).
- 빠니보틀 Pani Bottle, 2021, “광산 도시 태백에 가보자 [우리나라9],” YouTube (접속 2026. 4. 30.).
- 박소룡, 2025, “시원하다길래 일단 가 본 강원도 태백 1박2일 해바라기 축제, 용연동굴, 몽토랑 산양목장, 철암 탄광촌, 구문소, 감자옹심이, 우렁이 두부찜,” YouTube (접속 2026. 4. 30.).
- 오호부부, 2025, “태백 은근히 매력있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소도시 1박 2일 태백 여행,” YouTube (접속 2026. 4. 30.).
- 주말남, 2025, “한때 최고의 부자동네, 지금은 인구소멸 위기의 도시 태백 혼자여행,” YouTube (접속 2026. 4. 30.).
- 한국방송공사 다큐3일, 2008, “[몽클한 주말 #155] 인생의 회로애락, 막장에서 발견하다 | 태백에서 광부를 만나다 [다큐3일 080327 방송],” (접속 2026. 4. 30.).
- 한국방송공사 다큐 인사이드, 2024, “강원도 태백 장성 광업소 광부들이 써내려 온 88년 막장 드라마, 그 결말은? 탄광 120년 : 막장 240829 방송,” (접속 2026. 4. 30.).
- 한국방송공사 트래블 - 걸어서 세계속으로, 2018, “국내 최대 탄광촌이었던 강원도 태백 마지막 탄광이 문을 닫는 날까지, 아버지의 시간을 기록할 것이다... (한국방송공사_20180421),” (접속 2026. 4. 30.).